농촌계획
Vol. 9, No. 3, 2003 (9-1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농촌주거환경실태와 주민만족도

김상범 · 조순재 · 강방훈 · 김혜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Study on Rural Living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by Improving Rural Hosing Renewal Project

Kim, SangBum · Cho, SoonJae · Kang, BangHum · Kim, HyeMin
National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housing renewal project and suggest the conditions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filled with the resident's desire, requirements concerning about characteristics of a rural environment and temporal and social requirements.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has been executed in a few ways: reform of the rural hous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territories for settlement of a desolate region. To analyze and assess the accomplishments, we considered codes and process related to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and analyzed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through many reference books and administrative data.

According to these results, devices in futu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environment are as follows; It should required a rational allocation of working space, living space, cultural activity space suitable for rural area characteristics and changed into uniformed system in various projects governed by different institutions.

Key words : Amenity, Development strategy, Rural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통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도시, 군=농어촌'이라는 구분이 사용되어 왔으나 도시·농촌을 통합한 행정시의 출현으로 '동=도시, 읍·면=농어촌'이라는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2000년 통계청 기준으로 농촌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87%(임야 66%, 논 12.3% 전 8.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수는 1,419개, 농가는 1,383,468가구, 농촌거주민은 4,031,065명으로 총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1b).

주거를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이라고 정의할 때 현재의 농촌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터전이 되지 못하고 "살기 불편한 곳",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의 침체와 농촌인구의 탈농·이촌 현상은 농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구 기반을 붕괴시켰고 교육, 의료, 시장 및 위락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 같은 농촌지역의 소득과 복지수준의 상대적 낙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농촌주거환경실태와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현재주거환경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Bum
Tel : 031-299-0512
E-mail : landlife@empal.com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조사

표 1. 농촌주거환경관련 사업

부 처	사 업 명	범위	목 표	주 요 내 용
농림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집단마을조성사업)	읍/면	정주기반 확립	756개 면당 30억 지원 마을기반, 문화복지시설, 도로, 환경보전시설, 주택정비 등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업기반공사)	지구	신마을 집단화 마을 재정비	지역중심 문화마을 20억 지원 주택단지조성, 문화복지시설, 상하수도정비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	녹색관광	마을당 1-3억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진흥청)	지구	주택 현대화	호당 280만원 융자사업
	농촌테마마을 (농진청)	마을	농촌체험 관광	마을당 1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지구	마을정비	240개 마을 선정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 등
	암반지하수 개발	지구	생활용수 개발	면 단위이하 자연마을 1억7천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지구	환경보전	문화마을조성지구에 보조 4억원
행정자치부	오지개발사업	읍/면	낙후지역 개발	오지면 399개 면당 20억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서개발사업	읍/면	낙후지역 개발	53개면 449개 도서당 평균 10억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마을정비	20가구 이상 마을에 호당 1600만원 주택개량, 공공기반, 주민편익시설, 소득증대사업 등 개발유형 다양
	취락구조개선사업	읍/면	주택개량	주택구조개선시 가구당 1600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지구	주택개량	주택개량시 융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마을	마을정비	마을당 10억원
	농어촌도로정비	-	도로정비	면도, 리도, 농도 확장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지구	환경보전	자연마을보조 1-5억원
	오염소하천정비	-	환경보전	km당 보조 2-4억원
	정보화시범마을	마을	마을정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환경부	지방상수도개발	읍/면	생활용수 개발	면소재지 위주지역 지구당 50억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읍/면	환경보전	관련사업 우선지원
	면단위하수 처리시설	읍/면	환경보전	면소재지 개소당 보조 20-40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읍/면	환경보전	개소당 보조 30억원

* 자료 : 김정호 외 4인(2001) 「21세기 농업 · 농촌정비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51 재구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변화내용을 도출하고자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접근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농촌주거환경의 기초단위인 주택과 마을, 지역단위로 구분하였고 내용적으로는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주요내용, 사업량 사업주체 등을, 시간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촌관련사업 중 주거환경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문헌 및 제도고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나. 농촌주거환경 실태조사

농촌주거환경의 구체적 실태와 문제점,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전국 시군당 1개 마을(전국 187개 마을)을 선정, 2001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마을현황과 주민의식부분으로 나누어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을에 관한 조사는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민만족도는 마을당 10호를 무작위 추출 1870호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항목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분석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구조개선 등의 주택정비사업과 도로정비,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의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주관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관련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 도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집단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다음은 관련사업들을 주관부처, 사업명, 공간적 범위, 목표, 주요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 농촌주거환경관련사업은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을 효시로 1980년대의 농촌 종합 개발을 거쳐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창고, 농지조성 등 농업생산성측면과 부엌, 화장실, 목욕실, 난방 등의 생활환경측면에서 도시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실시되었으나, 최근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 등 국제 농업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비농업 분야의 소득창출과 하천, 마을숲 등 자연환경 및 교육, 의료 등 생활복지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 삶의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농촌주거환경관련 사업의 변화과정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	1990년대 중반이후
정책기조	기초환경 개선	종합 개발	면단위 개발	마을단위 개발
주요 정책	새마을 사업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도서·오지개발	면단위 정주권 개발 주택 개량	중심마을 정비 신마을 건설
의의	농어촌생활정비에 관한 정부 정책의 시초	추진방식의 전환 (단위사업→ 종합개발)	예산규모 확대로 사업 및 주관부서의 다양화	각종 사업을 종합연계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주관 부서	내무부	내무부, 농수산부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집단마을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마을 녹색여가체험마을

* 자료 : 박시현, 송미령(1999)「환경시대 농촌정비의 방향과 과제 p7-8 재구성

2. 농촌주거환경실태분석

가. 가구 및 인구현황

조사대상 187개 마을현황은 총 18,424가구에 인구는 52,966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전업농가 7,519가구(40.8%), 겸업농가 1,461가구(7.9%), 비농가 9,444가구(51.3%)로 농가와 비농가의 비율이 1:1.05로 나타났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총 8,980가구는 전국 농가 1,383,468가구의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a). 농가구성은 2000년 기준으로 전업농가는 전국 902,149가구(65.2%), 조사마을 7,519가구(83.7%), 겸업농가는 전국 481,319가구(34.8%), 조사마을 1,461가구(16.3%)로 조사마을의 전업농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는 1970년 14,422천명에서 2000년 현재 72.0% 줄어든 4,031천명으로 계속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비중도 1995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져 2000년 현재 8.6%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1a).

나. 농가환경

1) 농가주택

농가주택을 조사한 결과, 농가주택의 건축 시기는 1990년 이후 신축된 것이 45.3%를 차지하였으며, 주택 면적은 20~29평 46.0%, 30~39평 19.5%로 20~39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재료는 목조(한옥) 43.6%, 철근콘크리트 31.7%로 대부분을 자치하였다.

2) 농가부업

농가부업의 입식개선은 88.9%로 나타났으며, 도시(전국) 95.2%, 농촌(전국) 89.3%의 부업개선율(통계청, 2001a)과 비교하면 도시와 6.3%의 차를 보였다. 농가부업 만족도는 입식 부업에 대하여 62.8%이 만족하였고 만족도는 3.59를 나타냈다. 반면 재래식 부업은 89.5%가 불만족하였으며 만족도도 1.8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가부업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하면 만족 59.1%, 불만족 14.2%, 보통 26.7%로 평균 만족도 2.70을 나타냈다. 특히 재래식 부업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화, 적은 면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표 3. 농가부업 만족도 (단위 : %, 5점 척도)

구분	계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불만	매우 불만	만족도
		(5)	(4)	(3)	(2)	(1)	
입식	100.0	6.4	56.4	28.0	8.2	1.0	3.59
재래식	100.0	-	3.8	6.7	55.2	34.3	1.80
계	100.0	6.0	53.1	26.7	11.1	3.1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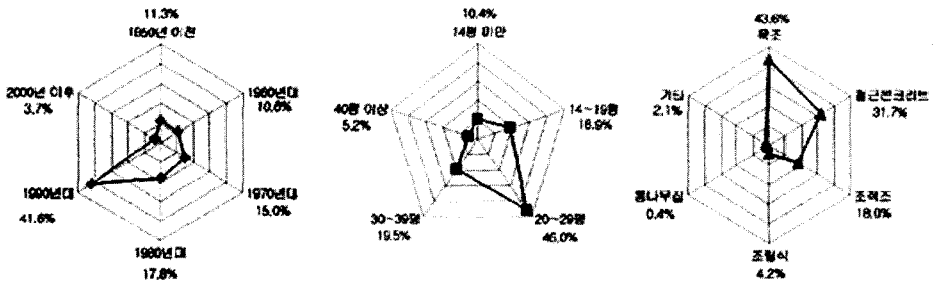

그림 1. 농가주택의 건축시기, 면적, 재료

3) 농가 화장실

농가화장실은 수세식 64.8%, 재래식 32.5%, 포세식 2.9%로 나타났으며, 도시(전국) 93.0%, 농촌(전국) 65.0%의 수세식 화장실 개선율(통계청, 2001a)과 비교해보면 조사마을 64.8%는 도시와 28.23%의 큰 차를 보였다.

농가화장실 만족도는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옥외의 경우 수세식, 재래수거식, 개량수거식, 포세식, 기타로 구분하였다. 옥내 화장실의 경우 74.1%가 만족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만족도는 3.78로 나타났다. 옥외 화장실은 수세식 18.0%, 재래 수거식 55.5%, 개량 수거식 22.8%, 포세식 3.7%로 나타났다. 수세식의 경우 만족 72.2%로 만족도 3.73을 나타냈으나 재래 수거식 2.30, 개량 수거식 2.92, 포세식 2.42, 기타 1.91로 수세식을 제외한 옥외화장실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만족도는 옥내 화장실 3.78, 옥외 화장실 2.66, 평균만족도 2.84로 나타났다. 옥외 화장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청소, 냄새 등의 관리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농가 목욕실

농가목욕실은 온수시설 75.5%, 냉수시설 15.1%, 미설치가 9.4%로 나타났다. 도시 90.2% 농촌(전국) 77.3%의 온수시설 개선율(통계청, 2001a)과 비교해보면 조사마을 75.5%는 도시와 14.7%의 큰 차를 보였다. 농가목욕실 만족도 조사는 온수시설 68.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3.65를 나타냈다. 반면 냉수시설은 77.9%가 불만족하였으며 만족도도 2.01로 낮게 나타났다. 농가목욕실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면 만족 63.5%, 불만족 10.9%, 보통 25.6%로 평균 만족도 2.83을 나타냈다.

표 4. 농가화장실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

구분		계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불만	매우 불만	평균 만족도
			(5)	(4)	(3)	(2)	(1)	
옥내 화장실		100.0	11.1	63.0	19.7	5.1	1.1	3.78
옥외 화장실	수세식	100.0	9.8	62.4	2.0	7.1	0.7	3.73
	재래수거식	100.0	0.4	11.9	23.3	46.0	18.4	2.30
	개량수거식	100.0	2.2	27.8	35.2	29.3	5.5	2.92
	포세식	100.0	-	13.5	26.9	48.1	11.5	2.42
	기타	100.0	-	4.5	27.3	22.7	45.5	1.91
계		100.0	6.0	40.3	23.2	22.7	7.8	2.84

표 5. 농가목욕실 만족도 (단위 : %, 5점 척도)

구분	계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불만	매우 불만	평균 만족도
		(5)	(4)	(3)	(2)	(1)	
냉온수	100.0	8.0	60.7	26.3	4.2	0.8	3.65
냉수	100.0	-	3.8	18.3	52.7	25.2	2.01
계	100.0	7.4	56.1	25.6	8.1	2.8	2.83

5) 농가 난방시설

농가난방시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기름보일러가 편리함으로 인하여 76.7% 설치되었으며 가스보일러 11.3%, 전기보일러 4.0%, 연탄보일러 3.4%, 아궁이 2.8%, 태양열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름보일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기와 태양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땔감을 이용한 재래식 아궁이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촌의 난방연료 소비현황과 비교해보면 조사마을이 가스보일러(11%)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난방시설의 만족도는 태양열보일러와 전기보일러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 3.58, 가스보일러 3.54, 연탄보일러 2.28, 재래식 아궁이 1.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탄보일러와 재래식 아궁이는 만족한다고 답변한 가구는 각각 6.0%, 6.8%에 불과하였다. 난방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면 만족 63.5%, 불만족 11.5%, 보통 25.0%로 평균 만족도 3.28을 나타냈다.

다. 마을환경

1) 생활공동시설

생활공동시설은 187개 마을에 총 304개소가 조사되었으며 마을당 평균 시설수는 1.62개소로 나타났다. 시설내용은 마을회관(57.8%), 노인정(9.7%), 건강관리실(7.8%), 찜질방(5.4%), 마을마당(3.9%), 마을주차장(1.9%), 기타(13.1%) 등으로 나타났고, 건축시기는 1990년 이후가 179개소(58.9%)로 가장 많았고, 규모는 20평 미만 59개소(19.4%), 21~40평 158개소(52.0%), 41~60평 46개소(15.1%), 61~80평 16개소(5.3%), 81평 이상 25개소(8.2%)로 나타났다.

표 6. 난방시설별 만족도 (단위 : %, 5점 척도)

구분	계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불만	매우 불만	평균 만족도
		(5)	(4)	(3)	(2)	(1)	
태양열 보일러	100.0	36.0	51.0	11.0	2.0	-	4.21
기름 보일러	100.0	5.8	56.4	28.6	8.2	1.0	3.58
연탄 보일러	100.0	-	6.0	30.0	50.0	14.0	2.28
가스 보일러	100.0	11.5	50.0	23.1	11.5	3.9	3.54
전기 보일러	100.0	31.2	61.3	5.2	2.3	-	4.21
재래식 아궁이	100.0	-	6.8	13.6	38.6	41.0	1.86
계	100.0	9.6	53.9	25.0	9.2	2.3	3.28

2) 농업생산시설

농업생산시설은 전체 187마을에 75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시설내용은 농기계창고, 농산물 저장고, 작업장, 집하장, 퇴비장, 건조장 등이었다. 특히 농산물저장고(41개소, 54.7%)와 농기계창고(19개소, 25.3%)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마을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은 상수도, 하수도, 오수정화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144개소가 조사되었다. 1990년대 설치된 것이 82개소(56.9%)로 가장 많았고 시설별로는 상수도 105개소(72.9%), 하수도 26개소(18.1%), 오수정화시설 9개소(6.2%), 쓰레기매립장 4개소(2.8%)로,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민만족도

1) 생활환경만족도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만족도는 거주만족도, 마을발전전망, 이주사유, 젊은층의 거주적합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거주만족도는 조사대상 중 '계속 살고 싶다'76.2%, '계속 살고 싶지 않다 '6.8%, '당장 이사 가고 싶다' 4.5% 무응답 2.5%로 나타났으나, 마을발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그렇다' 2.9%, '그렇다' 25.8%, '보통이다'36.8%, '그렇지 않다' 25.5%, '전혀 그렇지 않다' 6.1% 무응답 2.8%로 나타났다.

이중 이주의사를 가진 21.3%는 이주사유로 자녀교육문제 34.4%, 경제적 문제 30.1%, 생활환경낙후 19.6%, 농사의 어려움 12.1% 기타 3.8%로 답하였으며, 젊은층 가정이 살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7%, '그렇다' 15.2%, '보통이다' 35.5%, '그렇지 않다' 37.1%, '전혀 그렇지 않다' 8.0% 무응답 2.5%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농촌의 거주의사는 높지만 생활환경만족도는 낮았고 그 요인으로 경제, 교육을 손꼽았다. 특히 젊은층이 살기위한 생활복지측면의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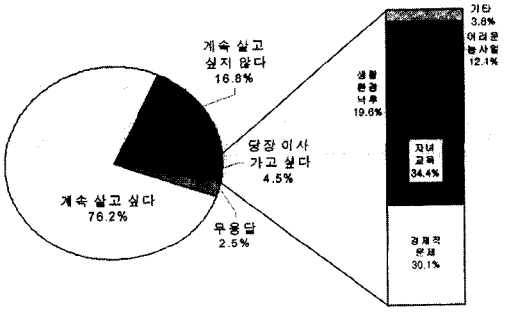

그림 2. 거주만족과 이주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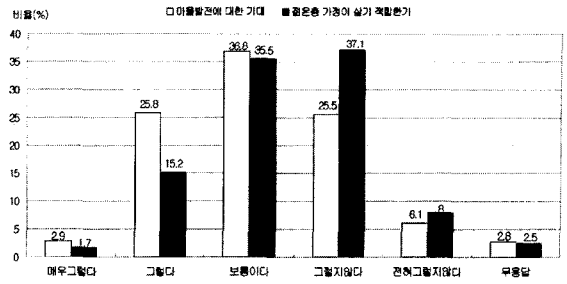

그림 3. 마을발전전망

2) 마을환경만족도

마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성,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경제 소득원 기반, 교통편리성, 마을공동시설의 이용, 마을종합경관, 교육시설, 복지시설, 수질오염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소음, 생물종류의 다양성, 녹지공간, 토양,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및 퇴비화, 전통문화의 보전 등 17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범죄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 3.48, 마을에 대한 소속감 3.59, 이웃과의 관계 3.79, 생물종류의 다양성(잠자리, 나비, 식물 등) 3.53, 마을 녹지공간(주변 숲 ,공원 ,텃밭 조성 등) 3.27, 토양(식재된 꽃과 나무의 양호한 생육) 3.53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시설(학교) 2.48, 복지시설(의료, 노인회관, 문화공간 등) 2.42로 낮게 나타났다. 마을환경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3.05로 나타났다.

3) 마을환경평가

마을환경평가는 농촌환경변화의 인식정도, 농촌변화의 원인, 농촌의 보전할 만한 환경 등 3가지 항목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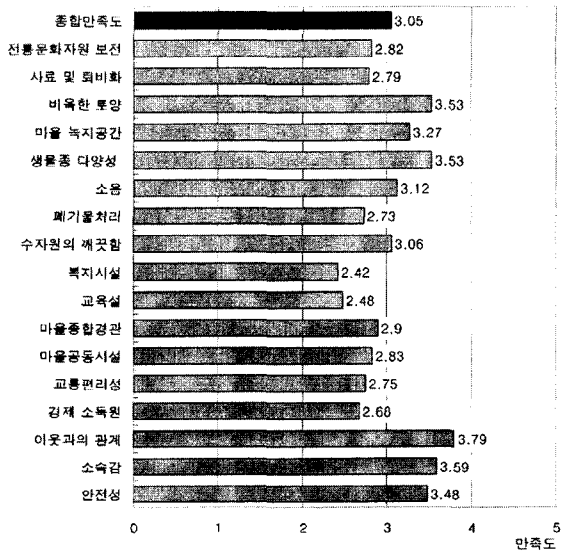

그림 4. 마을환경에 대한 만족도

하여 조사되었다. 농촌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빠졌다' 5.1%, '조금 나빠졌다' 42.5%, '그대로다' 24.1%, '조금 좋아졌다' 20.2%, '매우 좋아졌다' 5.3%, 무응답 2.8%로 나타났으며, 농촌환경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47.6%는 그 원인으로는 생활쓰레기 증가 39.1%, 농약 · 농용비닐사용 22.0%, 주거환경 불결 14.4%, 노후주택(공가) 9.4%, 수세식화장실 1.6% 기타 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자랑할만한 환경으로 주변자연경관 24.1%, 깨끗한 하천 17.0%, 공동체 활동 10.8%순으로 답하였고, 마을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자연환경과 공동체 의식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농촌주거환경 요인분석

1) 주택환경개선 요인분석

주택환경개선 요인분석은 주택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순위를 정리한 결과 주택신축, 마당(정원), 화장실, 목욕실, 울타리, 부엌, 곡물창고, 농기계창고, 난방시설, 창호개량,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2) 마을환경개선 요인분석

마을에서 생활에 필요하거나 마을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 하는 설문을 생활편익시설과 마을 경관 및 환경측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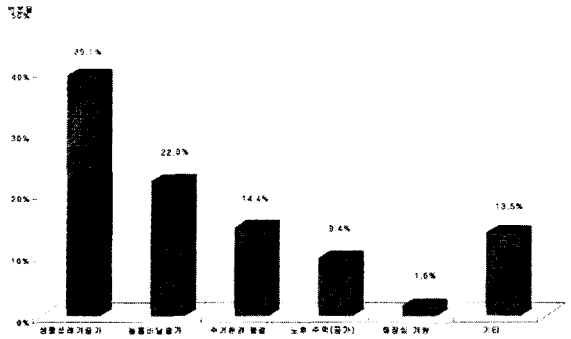

그림 5. 농촌환경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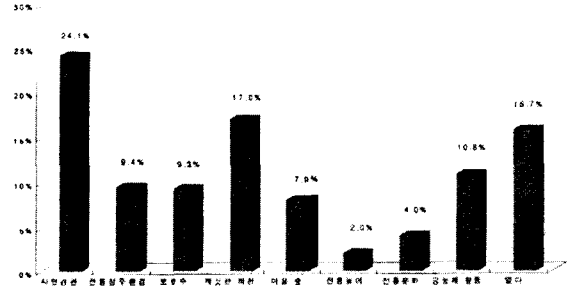

그림 6. 농촌의 자랑할 만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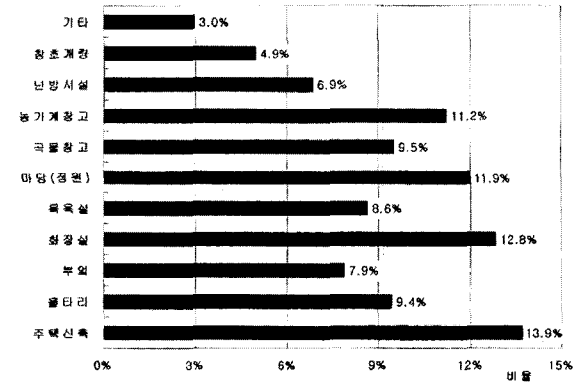

그림 7. 주택환경 구성요인 및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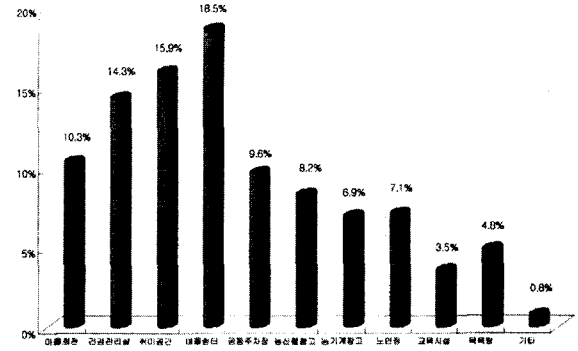

그림 8. 생활편익시설 개선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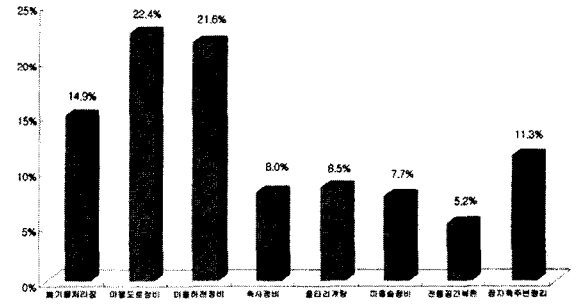

그림 9. 마을경관 및 마을환경 개선요구

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생활편익시설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마을쉼터조성 937명(18.5%), 취미공간 804명(15.9%), 건강관리장 722명(14.3%)순으로 생활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마을경관 및 환경측면에서는 도로 1,052명(22.4%), 하천정비 1,016명(21.6%)순으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그림 8, 9>.

IV. 적 요

우리나라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입식부엌(88.9%), 수세식화장실(64.8%), 온수목욕실(75.5%), 기름 · 가스난방(88.0%) 등의 주택환경을 도시수준에는 미치지는 못

했지만 점진적인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과거 개인생활과 관련된 것에서 자연환경(마을숲, 하천, 마을마당 등), 문화·복지환경(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비농업분야의 소득, 사회기반환경(하수처리시설, 도로 등)으로 다양화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을단위 사업과 여러 사업을 종합하는 계획수립 등 지속적인 사업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만족도에서는 농촌거주의사가 '계속살고싶다' 78%로 높게 나타났지만 애로사항으로 자녀교육 32%와 경제적 문제 29%를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젊은층 가정이 살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 37.1%로 나타났다. 마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세부적으로 범죄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 3.48, 마을에 대한 소속감 3.59, 이웃과의 관계 3.79, 생물종류의 다양성(잠자리, 나비, 식물 등) 3.53, 마을 녹지공간(주변숲 ,공원 ,텃밭 조성 등) 3.27, 토양(식재된 꽃과 나무의 양호한 생육) 3.53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시설(학교) 2.48, 복지시설(의료, 노인회관, 문화공간 등) 2.42로 낮게 나타났다. 농촌의 자랑할만한 것으로 주변자연경관(24.1%), 깨끗한 하천(17.0%), 공동체 활동(10.8%)순으로 답하였고, 복지측면의 필요한 시설로 마을쉼터조성(18.5%), 취미공간(15.9%), 건강관리장(14.3%)을 답하였고, 경관 및 환경측면에서는 도로(22.4%), 하천정비(21.6%)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종합해보면 농촌의 거주의사는 마을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우수한 자연환경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긍지 등에 의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주민만족도는 경제, 교통, 교육, 시설물 등의 낙후로 낮았다. 특히 젊은층이 살기위한 생활복지, 사회기반, 소득측면의 요구가 높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농촌의 발전에 대한 분야를 크게 생활복지, 경제소득, 농촌문화, 자연생태, 사회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수한 농촌의 자연생태환경과 문화환경(농업, 공동체활동 등)을 원동력으로 복지환경, 소득환경, 사회환경 등 분야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참여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활성화, 경쟁력강화를 통한 농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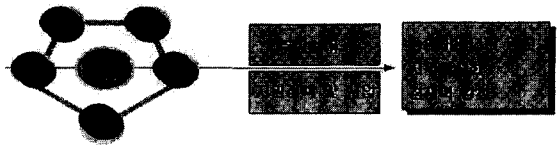

그림 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참고문헌

1. 김정호 외 4인, 2001, 21세기 농업·농촌정비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박시현, 송미령, 1999, 환경시대 농촌정비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안성기, 2000,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분석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윤주현, 김현승, 1997,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5. 이상문, 1999, 농촌생활환경 관련된 제도의 현황과 특성 고찰, 농촌 생활과학 20(2) : 76-81
6. 이종현, 199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7. 전혜미, 200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물리적 개선과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진정수, 박종택, 1998,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9. 통계청, 2001a, 2000 농어업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0. 통계청, 2001b,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